동혁과 수진은 개발이 되다 만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촌동네에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한 오랜 친구다. 그들은 각자의 불우한 가정사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술김에 몸도 섞는다. 그러나 연인관계는 아니다. 동혁이 먼저 멀찍이 선을 긋는 것이다. 관계의 진전을 내심 바라지만, 그 눈치를 모르는 수진도 아니기에 잠자리 후 둘의 모습은 항상 어색하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늦은 저녁에 함께 치맥을 하기로 한다. 수진은 동혁의 퇴근시간에 맞춰 동혁이 일하는 호프집에 찾아간다. 그런데 둘의 약속을 마침 동네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형이 와서 방해한다. 친구들과 호프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을 보고 반가워하며 그의 옆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는 누가봐도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이다. 그는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테이블 위에 아우디 로고가 그려진 차키를 슬그머니 올려둔다. 그러자 옆에서 수진이 난감한 듯 동혁을 쳐다본다. 그러나 가게바닥을 걸레질하던 동혁은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그를 외면한다.

동혁이 가게 앞 파라솔 위를 치우는 동안 어느새 술자리는 끝났는지 일행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 속에는 어쩐일인지 수진도 함께하는 모양이다. 모른척하다가 그모습을 멀거니 보던 동혁은 알바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마신다.

비록 자신이 수진을 책임질 생각은 없지만, 수진의 미지근한 태도가 영 화가 나는 동혁. 그리고 방금 전의 아까 그 재수없는 새끼에게 부아가 치민다. 꼴에 부모가 사준 외제차를 몰며 수진에게 추근대는 새끼의 속셈이란 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과 비슷한 어린시절을 보낸 수진에게 들이대니, 이건 마치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화가 나는 것이다. 동혁은 수진이 자신과 같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기에 그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빈 속에 새우깡을 안주삼아 소주 세 병을 비우고서야 동혁은 일어선다.

술에 잔뜩 취해 휘청거리며 낡은 아파트 복도를 지나는 동혁. 그는 도어락앞에서 낑낑댄다.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누르는 비밀번호가 죄다 틀린 탓이다. 몇번의 시도 끝에 이제는 도어락의 비상벨마저 울리자, 잠에서 깬 동혁의 부가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미 고주망태인 동혁은 오히려 부친을 향해 시비를 건다. 그는 “술마시고 취했으면 가서 들어가 자라”는 말에 계속 거칠게 들이댄다. “왜? 뭘 들어가? 왜? 너는 밤마다 엄마한테 그 지랄을 했으면서 야, 나는 왜 안되는데?” 인사불성이 된 동혁은 이번엔 부친을 앉혀놓고 지난날 부친이 자신에게 그랬듯 술주정을 한다. 이 모든 불행은 다 네가 자초한거라고. 네가 술쳐먹고 맨날 우리 때리고, 엄마를 죽게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러고 안산다며 끊임없이 욕이 섞인 주정을 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말없이 가만히 듣던 동혁의 부가 그를 한참 노려보다가 그의 손을 깨문다. 부가 손을 물고 놓지 않자, 순간 동혁은 술김과 홧김에 꼭지가 돌아버린다. 동혁이 자신의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때린다.

아들에게 무참히 얻어맞은 동혁의 부는 엠뷸런스에 실려간다. 서울에서 뒤늦게 소식을 들은 누나가 달려오고, 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듣는다. 한편 정작 소동의 장본인인 동혁은 여전히 술에 몸을 못 가누다 경찰서에 쓰러져 잠에 든다.

다음 날, 누나는 형사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며 간신히 동생을 데리고 나온다. 그녀는 턱밑까지 차오르는 절망을 느끼지만 동생에게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그저 입을 다문 채 걸을 뿐이다. 그리고 동혁은 옆에서 그런 누나를 눈치보며 말없이 따라간다.

몇달 뒤, 동혁이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를 기다리던 수진을 마주친다. 동혁은 그날뒤로 줄곧수진의 연락을 피해오던 차였다.

둘은 놀이터에서 각자 앞을 보며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둘의 표정이 자못 심각하다. 수진이 동혁에게 자신이 몇달째 생리를 안한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동혁은 난감해하며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 아니 그보다 자신이 확실하냐고 묻는다. 수진은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차가운 태도의 동혁이 너무 서운하다. 그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혁은 수진을 계속해서 다그친다. 설령 애를 낳고 우리 둘이 결혼을 한들 그 거지같은 집구석을 또 물려주게 될텐데 그건 어쩔거냐고 묻는 것이다. 그러다가 피우던 담배를 뻑뻑 빨며, 이번에는 설득조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 그러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거라고.

그러나 동혁은 단호하다. 그는 수진으로부터 아이를 끝내 지우겠다는 확답을 듣고서야 담배를 비벼끄며 자신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말한다.

각오는 했지만 모질고 야멸찬 동혁의 태도에 수진은 상처받는다. 그녀는 놀이터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린다.

다음날, 동혁의 부가 남매를 불러 모은다. 그는 둘을 앉혀놓고 별안간 자신은 동혁에 대해 선처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다. 그는 동혁에게 자신을 때리면 바로 경찰을 부를 거라며 미리 일러두고, 이어 본론을 이야기한다. 만약 처벌불원서를 얻고 싶으면 친자검사에 응해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뇌졸중을 앓는 그는 저린 다리를 수시로 주물러가며 말을 잇는다. 자신의 십년전에 죽은 아내로부터 외도의 정황을 봤음에도 그냥 묻고 지나간 일이 있다는 것. 그는 자신이 지난날 아내의 속옷에서 다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을 보았노라고 얘기한다.

그 소리를 듣고 동혁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부친을 다시한번 걷어찬다. 이번에는 맨정신이다. 누나는 누나대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를 개패듯 걷어차는 광경을 남일처럼 무기력하게 멀거니 본다. 그때 누나의 시선에서 동생이 부친을 때리는 장면이 과거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발길질을 당하던 장면과 교차한다. 그렇게 한참을 넋을 놓던 누나는 문득 부친이 짓는 표정에 깜짝 놀란다. 부친의 표정이 과거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표정과 같은 까닭이다. 쏟아지는 매질을 견디면서 마치 모든 것들을 체념한 표정, 눈을 감고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누나가 동생의 다리를 붙잡으며 말린다. 그러자 동혁은 눈물을 뿜으며 말리는 누나를 향해 “누나는 지금 이 새끼가 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러냐. 이새끼가 이제는 우리엄마더러 창녀라고 하지 않느냐.”며 소리친다. 동혁은 자신의 아버지를 계속 걷어차다 분이 안풀리는지 이번에는 ‘이 개새끼야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라’며 부친을 타고 앉아 목을 조른다.

이미 자신이 말릴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은 누나는 동생이 살인자가 되는 꼴을 볼 수 없어 경찰을 부른다. 그로 인해 상황은 정리되고, 동혁은 존속상해죄로 구속된다.

그 후 몇달이 지나고, 구치소에 수감된 동혁이 그를 면회 온 누나와 마주한다. 동혁은 아까부터 묵묵부답이다. 자신을 신고한 누나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한 까닭이다. 그런 그를 향해 누나는 울면서 자신이 동혁을 위해 밤새워 탄원서를 공들여 썼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퀸의 앨범을 내민다. 누나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네 생각이 참 많이 났다고 말한다. 앨범을 받아 든 동혁에게 누나는 눈물 묻은 얼굴로 웃어보인다.

이어 동혁을 찾아온 이가 또 있다. 수진이다. 둘은 별다른 대화 없이 면회시간을 채운다.

시간이 다 되어 면회가 끝나자, 수진은 일어서며 말한다. “네가 나중에 네 말처럼 걱정없이 사랑받고 자란 여자 만나서 좋은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러자 가만히 있던 동혁이 갑자기 훌쩍훌쩍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수진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신은 용서할 가치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동혁을 수진은 가만히 바라보며 말한다. 자신은 이미 동혁을 용서했다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그리고 용서는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말하다.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뭐하러 구하겠느냐며 웃는다.

이후 재판이 열린다. 재판에서 누나는 증인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동혁의 누나는 “도대체 저 애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같은 시절을 겪었지만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신도 동혁에게 책망할 수 없다”면서, 과거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끝내 몸을 던지기까지 부친이 저질렀던 폭력과 경찰을 찾아도 언제나 가정사, 집안일이라며 모른척하더니 이제와서 동혁에게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울며 말한다. 그러면서 “부디 지난 어린시절동안 언제나 보복 어린훈육만을 받고 자라 따뜻한 관용이란 경험한 적 없는 젊은이가 이번에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단 한번의 기회를 달라, 자신이 옆에서 잘 타이르겠다”며 호소한다. 그러나 그런 호소에도 동혁은 징역 8월을 받는다. 그리고 이후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몇달 뒤 남매의 생부가 세상을 떠난다. 동혁은 과거 수진에게 했던 말과 다르게도 부친의 장례식을 치른다. 썰렁한 빈소에 누나와 멍하니 앉아있는 동혁. 그는 이어폰을 낀 채 유골함을 들고 어디론가를 향해 버스를 탄다. 도착한 곳은 아무도 없는, 그저 바람과 갈대만이 무성한 밭이다. 동혁은 유골함에서 아버지의 뼛가루를 꺼내 바람에 실려 보낸다.

이어 동혁의 이어폰 속 노래가 들리며 막이 내린다.

Mama, ooh

엄마, 우우우

Didn't mean to make you cry

울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만약 내일 이 시간 즈음에 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Carry on, carry on

살아가세요, 살아가세요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